


2017 정기회원총회



〈학교앞 코도소 반대부경의 상경, 토마리 켄막이 제거된 후의 모습...(2. 18일)〉

- ◆ 때: 2017년 2월 2일(수) 오후 7:30
- ◆ 곳: 광안리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www.gcngo.org **함 께 하 는 거 창**

501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길 74

전 화 055-942-1117

팩 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 2월 2일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 회 순 서

- I부 -

사 회 : 김하주 사무국장

- 1.개회선언
- 2.공동대표 인사말
- 3.감사보고
- 4.2016년 결산보고
- 5.2016년 사업보고
- 6.2017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 7.2017년 예산(안) 보고, 의결
- 8.임원 개선
- 9.기타 안건 토의
- 10.폐회선언

- II부 -

내빈인사 및 덕담나누기

따뜻한 질책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상임대표 이성호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셨는지요?

2017년도 **함께하는게장** 정기 회원총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정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게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함께하는게장**으로서는 정기 회원총회가 회원님들의 생생한, 여과되지 않은 질책과 격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함께하는게장**은 기존에 주력해 오던 학교앞 교도소 이전운동과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운동에 겹쳐 박근혜정권 규탄퇴진운동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빴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묻혀 **함께하는게장** 고유의 사업과 회원관리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님들의 따뜻한 질책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하는게장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입니다.

올해 **함께하는게장**은 이 슬로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회원확충에 힘쓰는 한편, 고유사업 발굴·추진 및 각종 연대사업을 통해 지역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회원총회에 꼭 오셔서 따뜻한 질책과 격려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공동대표 이성호 올림

감 사 보 고

감사 이 상 황

지역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함께하는거장**의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먼저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토인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처럼, 지난 한 해도 지역 사안 및 전국적인 사안에 매진해 온 **함께하는거장**의 내실있는 활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거장은 전국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유지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회계 또한 유리처럼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 사무국 일반회계와 장학사업 특별회계까지 살펴본 결과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하게 쓰되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비록 두 번뿐이지만 소식지가 발간되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올해는 분기별 1회, 총 4회 발간을 기대해 봅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1회씩 열어야 하는 정기운영위가 각종 사정으로 2~3회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올해는 조기대선으로 거창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들도 챙겨나가되, **함께하는거장**의 고유사업 및 회원관리도 내실 있게 꾸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6년 1월 28일 오후 7:30

2. 회의장소 : 함께하는거창 회의실

3. 회의안건 : -.감사보고

-2015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2016년 예산(안) 보고, 의결

-기타 토의

4. 출석회원 :170명 중 58명(출석 18명, 위임 40명)

5. 회의내용

- 조영준 감사의 감사보고, “재정의 안정화 보였다. 지출결의서는 적어도 월 1회 결재가 필요하다. 소식지 발간되지 않은 게 아쉽다” 지적.
- 김하주 사무국장의 2015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 김하주 사무국장의 2016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의결
- 김하주 사무국장의 2016년 예산(안) 보고 및 의결
- 기타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
 - 기타안건 토의에서는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재구성, 2년간 중단되었던 기타강좌 재개설, 영화번개 활성화, 3년 전 실시했던 회원 꽃배달사업을 올해 추진할 것 등이 논의됨.
 - 타 단체와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거창시민사회단체 연합체육대회를 준비하기로 결의.
 - 회원확충에도 신경 쓰기로 함.

2016년 1월 28일



2016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16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현 금	12,034,288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3,600,000	퇴직적립금	3,600,000
임차보증금	21,500,000	자 본 금	33,534,288
합 계	37,134,288	합 계	37,134,288

22016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48,930,969	일반회계 (사무국)	36,896,681	일반회계 (사무국)	12,034,288
장학사업특별회계	17,828,476	장학사업특별회계	16,600,760	장학사업특별회 계	1,227,716
합 계	66,759,445	합 계	53,497,441	합 계	13,262,004

3장학사업 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7,200,000	장 학 금	16,600,000
이자수익	1,765	부대비용	500
전년도 이월금	626,711	세금과 공과금	260
		현 금	1,227,716
수입합계	17,828,476	지출합계	17,828,476

4일반회계(사무국)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8,215,000	인 건 비	급 여	19,200,000	
	후원금 (사무국)	1,530,000		상여금	700,000	
	후원금 (연구소)	2,320,000		퇴직적립금	1,200,000	
	후원금 (작권모)	1,453,000		복리후생비	2,020,360	
기타수입	이자수익	7,056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차입금	0		기기구입비	171,100	
	잡수입	3,968,000		사무용품비	13,200	
	전년도 이월금	11,437,913		세금과 공과금	480	
				소모품비	0	
				수선비	108,000	
				수도광열비	1,107,480	
				통신비	554,821	
				사 업 비	도서인쇄비	586,750
					발 송 비	166,950
					분 담 금	3,640,500
					사 업 비	2,770,000
					회원활동비	414,140
					회 의 비	517,300
			출장연수비		0	
			사업외비용	잡 비	125,600	
				예비비	0	
				현 금	12,034,288	
수입합계		48,980,969	지출합계		48,980,969	

5. 계정과목 설명

+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사무실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 금

● 자산변동 현황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
현 금	11,437,913 (32.4%)	12,034,288 (32.4%)	+596,375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2,400,000 (6.8%)	3,600,000 (9.7%)	+1,200,000	퇴직적립금	2,400,000 (6.8%)	3,600,000 (9.7%)	+1,200,000
임대차보증금	21,500,000 (61.0%)	21,500,000 (57.9%)	-	자 본 금	32,937,913 (93.2%)	33,534,288 (90.3%)	+596,375
합 계	35,337,913 (100%)	37,134,288 (100%)	+1,796,375	합 계	35,337,913 (100%)	37,134,288 (100%)	+1,796,375

·현금: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금.

·적금(퇴직적립금):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늘어난 360만원입니다.

·임대차보증금:변동 없습니다.

·퇴직적립금:왼쪽 설명 참고하세요.

·자본금:함께하는기업의 순수한 자산입니다. 2016년에 비해 596,375원 늘었습니다.



2016년 사업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

■ 청소년 장학사업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담당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6년에는 29명(중학생 9명, 고등학생 19명)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장학사업 회계는 사무국 회계와 완전히 분리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과 예금이자 등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액 장학사업에만 사용합니다.

■ 학교앞 교도소 반대운동

- 1.7일 11:00 군청 상황실에서 신임 김종두 창조산업과장과 계장 등 4인 면담.(이점도,김은옥,류현덕,김하주)
 - ▶ 류현덕: 천막과 관련한 군 측의 고소로 갈등을 키웠다. 많은 군민들을 대표하는 범대위 간부를 고소한 것은 바로 군민을 고소한 것이다. 천막은 갈등해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따라 범대위에서 자진철거한 것이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군에서 범대위를 고소한 것은 옳지 않다.
 - ▶ 김종두: 천막고소건은 오늘 처음 듣는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법과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나.
 - ▶ 김은옥: 공무원의 윤리와 철학이 필요하다. “공무원이기 때문에”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
 - ▶ 이점도: 군에서 범대위 간부 5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길 바란다. 군민 주장을 탄압하지 말라. 올해는 대화도 자주 하며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 1.14일 19:30 제7차 상임대책위원회 개최

<제7차 상임대책위원회 회의록>

▶ 일시: 2016. 1. 14(목) 17:30

▶ 장소: 콘서트하우스IN

▶ 참석자: 이곤섭, 표정숙, 이춘옥, 김은옥, 이점도, 류현덕, 정성순, 송만호, 이명행, 우태영, 정재원, 임영태, 서미경,

심순애, 김수진, 박고희, 최광재, 신용민, 김민지, 권정미, 공혜진, 정연탁, 이소영, 김혜선 외 4명. 총 28명

■ 안건1: 교반활동 자체평가

- ▶ 신○○: 기대 이상으로 범대위가 교반활동을 잘 이끌어 왔다. 교반 새누리 후보가 군수와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지할 것인가? 공천 받은 국회의원후보가 군수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교반 새누리후보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야 하지 않나? 비공식적으로 강석진을 만나 의사타진을 해 보는 건 어떨까?
- ▶ 이○○: 강석진의 공천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강석진은 이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
- ▶ 김○○: 송년의 밤 행사 통해 승리의 확신 얻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 이○○: 4.13을 마지막으로 교반활동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 ▶ 최○○: 이제껏 집행부가 정말 잘해 오셨다. 필요할 때 힘을 강하게 모으고 또 그 힘을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 다행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다. 후보들도 교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처음의 열정으로 나아가자.
- ▶ 권○○: 힘들고 어렵지만 일은 재미있게 해야 한다. 교반 국회의원과 군수를 꼭 만들자.
- ▶ 정○○: 싸움에도 고저가 있다. 당장 모이는 사람 수가 적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자신감을 갖자. 당은 중요하지 않다. 새누리 후보가 이전을 주장하면 그를 지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당의 문제가 아니다. 긍정적인 슬로건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살리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 ▶ 이○○: 얼마 남지 않은 싸움이다. 힘을 모으자.

■ 안건 2,3: 선거대책 논의+신년계획 수립

- ▶ 이○○: 4.13일이 교반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이냐, 기나긴 싸움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냐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집행부만의 힘만으로는 아니라 다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 ▶ 최○○: 범대위의 당 배제 입장 견지로 인물난 겪었다. 일종의 족쇄였다. 교반만 중심에 둔다면 당색을 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을 알리기 위해 교반활동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교반당'이다.
- ▶ 권○○: 교반 의지만 확고하다면 어느 당이든지 가리지 않고 지지하겠다.
- ▶ 이○○: 후보들의 정확한 의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 보겠다.
- ▶ 김○○: 범대위는 시작부터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 뜻을 같이하는 당이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 지금같은 선거국면에서는 우리(범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령 피케팅 동참 등... 모든 교반 세력의 초당적 결집이 우리의 목표다. 힘의 가시화가 필요하다.
- ▶ 정○○: 초당적 입장에는 모두 동의하는 듯하다. 선거 전 군민대회를 두 차례 정도 개최하자. 후보들을 만나 보고, 교도소 이전을 주제로 후보자 초청토론회도 열자. 후보들이 우리 입장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한다. 일단은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 조직화해야 한다. 서명자그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반의지 확고한 사람을 면책으로 임명하자. 3개월 동안 총력 활동 가능한 사람을 고용하자.
- ▶ 김○○: 이 자리에 선거에서 이긴 경험 있는 분이 몇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 ▶ 송○○: 큰 틀을 먼저 짰 후 개별적인 사안을 논의하자.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핵심을 바로 치고 들어가자.
- ▶ 류○○: 작년 우리는 이흥기 낙마와 2016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가치결합이 아직 잘 유지되고 있다. 교반으로 모였지만 거창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한다. '군민통합선거대책본부(가)'은 선대본부장, 읍면선대본부장과 몇 개의 하부국으로 구성된다. 선대본부 카톡

을 개설해 인적구성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 ▶이○○: 오늘 선대본부장을 뽑아서 그에게 위임하자.(류현덕 추천 후 몇 사람 동의)
- ▶류○○: 상임대책위원장이 본부장 맡는 게 좋을 듯하다. 저는 조직 짜는 것을 도우겠다. 아니면 오늘 결정을 유보하고 카톡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자.
- ▶이○○: 공동본부장 체제는 어떨까? 일단 본부를 출범시킨 후 본부장에게 세부사항을 위임하도록 하자. (박수로 선대본부 출범에 동의) (거수로 우선적으로 1인의 본부장 선출에 동의) (류현덕, 박수로 본부장 선출 동의 및 수락)
- ▶류○○: 인선은 카톡을 통해서 하자. 예산은 범대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재정보고 - 표정숙

범대위 후원 송년의 밤 순수익이 2천만원 가량, 티켓판매는 2,300만원 가량이다.

- 1.19일 박종훈 도교육감 거창방문. 16:00 거창교육청에서 교장단과의 간담회 마친 17:00부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범대위 집행부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 공식적으로 “거창의 학교앞 교도소는 교육적으로 맞지 않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 밝힘. 18:00부터 그라찌에에서 범대위, 급식연대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등과 식사하면서 대화.
- 1.28일 14:00. 공무원 30여 명 천막철거 행정대집행 돌입. 범대위 회원 20여 명이 천막 안팎에서 대기했으나 몸싸움은 없었음. 양동인 거창군수 예비후보가 천막 안에서 범대위 집행부와 함께 연좌. 철거진행 중 류현덕 대변인이 성명서 발표. 철거 후 안상용 부군수 방문하려 했으나 현관에서 공무원들에게 진입을 제지 당함. 이곤섭, 류현덕, 이점도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 오후 5시경 이환철 과장이 군청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류현덕 대변인을 차량으로 위협하는 사건 벌어짐. 류 대변인은 바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
- 1.29일 11:00. 현관 앞 연좌농성 이어짐. 같은 시간 경남지방경찰청 간부가 거창경찰서장과의 면담에서 군청사 현관앞 농성문제를 협의. 정보과에서는 현장체포 논의 운운하며 농성장을 철수할 것을 권유해옴. 11:30분경 자진철수.
- 2.1일 19:00 천막재개를 위한 철야노숙투쟁 돌입. 노숙-이점도, 김하주.
- 2.2일 19:00 천막재개를 위한 철야노숙투쟁 2일차. 노숙-유재균, 임영태.
- 2.3일 19:00 천막재개를 위한 철야노숙투쟁 3일차. 노숙-김하주. 4일차부터 천막지붕 설치. 2.5일까지 이어짐.
- 2.6일 11:00. 로터리 철야농성장에 대한 1차 퇴거명령서 발부. 21:30분경부터 기존 자리에 천막 재설치.

- 2.7일 2차 퇴거명령서 및 1차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 2.8일 18:00까지.
- 2.9일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 당일인 2.9일 18:00까지.
- 2.10일 3차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 당일인 2.10일 18:00까지.
- 2.11일 16:30. 변범식 변호사로부터 계고장에 대응한 법률자문 받음(이점도, 류현덕, 김하주). 행정심판 청구 쪽으로 가닥 잡음.
- 2.16일 11:00 범대위, 창원지검 거창지청 앞에서 안상용 권한대행 소환 및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상용 권한대행 및 이선우 재무과장을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와 형법상 권한남용죄(고발인:이곤섭, 김하주), 행정대집행법 위반(고발인:이점도, 류현덕)으로 두 건의 고발장 접수. 이날 제4차 계고장 발부됨(17일 18:00 시한)
- 2.18일 12:30 물품 외 천막만 자진철거한 후 버스에 싣고 창원으로 출발. 15:30 행정대집행법 상 부당한 행위를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당초 도청 4층 법무담당관실에 들러 제출하려 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청사 입구 경비실로 와 이곳에서 접수. 김은옥 상임대표가 거세게 항의. 15:30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시 현수막을 못 펼치게 해 범대위 강력 항의. 바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 100여 명이 가로 막아 실랑이 벌어짐. 결국 현수막 없이 기자회견문 낭독. 16:00 창원고법에서 이숙형 선생의 명예훼손 재판이 선고유예 판결로 마무리됨. 20:00분쯤 거창 도착해 천막설치 재개. 벽면까지 둘러쳤으나 동원된 공무원 50여 명이 벽면을 철거하고 지붕만 남겨둔 상태에서 대치함.(행정대집행법상 일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불가. 담당공무원은 청사방호 차원에서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법의 소지 다분함. 고발조치 검토중)
- 2.19일 01:40 공무원들 철수함. 02:00경 천막설치 시작. 변현성 예비후보, 다음주 월요일(22일)경 부군수 면담하겠다는 의사 밝힘.
- 3.2일 17:30 거창읍로터리(농민회, 여농, 거창초), 대고앞사거리(거창여성회, 아림초), 법원사거리(와이, 적십자노조, 푸른산내들, 샛별초, 어도연), 북부사거리(함께하는거창, 거창군교사회, 교반거창군미술인협회), 대동로터리(사사세, 언소주, 창동초), 1교(거창군요양보호사모임, 여성축구회, 여성족구회), 2교(국농소청년회, 육송회, 가지리청년회, 창남초), 4교(샛초교사회, 북상초교사회)에서 동시다발 현수막&피켓시위 진행. 18:30부터는

거창성당 주관으로 ‘학교앞교도소 문제해결 및 군민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천막미사’가 거창읍로터리에서 진행됨(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집전). 미사 후 정영주 씨가 분홍립스틱 개사곡 부르고, 표정숙 상임대표가 성명서 낭독.

- 3.20일 13:00 문경남 커피숍에서 범대위 상임대표단 회의. 표정숙, 김은옥, 서미경, 이춘옥, 이곤섭, 이점도, 류현덕, 김하주. 15:00 천막 현장에서 천막 자진철거 의향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20:00, 양동인 후보 면담해 단일화 시점 및 내용 논의.
- 3.21일 17:00경 강석진 새누리당 총선 후보로 확정.
- 3.22일 20:00경 콘IN에서 비상상임대책위원회 개최. 류현덕 대변인 경과보고.
- ①양동인, 변현성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 류○○, “단일화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나 범대위의 역할에는 한계가 보인다.” 정○○, “후보등록 전 단일화가 최선이지만 단계별 단일화작업도 괜찮다. 27일까지 단독 등에서 단일화를 촉구해야 한다.” 이○○, “두 교반후보 중 1인을 지지하면 편향적이라는 비판 받지 않겠나?” 이○○, “단일화 의지 있고 지지율 높은 사람을 선택해지지(선언)할 수밖에 없다.”
- ②국회의원 후보 관련 논의. 류○○: “전성은 공동대표께서 ‘범대위가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대표단에서 강석진 캠프를 들르더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표는 마음 가는 곳으로 간다.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 “우리에게 유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촉구하자.” 정○○, “우리끼리 물고 뜯는 일은 없어야 한다.” 표○○, “범대위는 국회의원선거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류○○, “편향되지 않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유○○, “총선 후보들에게 확실한 담보를 얻어내야 한다. 권을 이용해 강을 압박해야 한다. 경쟁을 시켜야 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교도소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는 정치구도의 문제다. 언제 가능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 3.30일 18:00 로타리에서 대규모 피켓시위 후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9:00 권문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 4.2일 범대위, 교반군수로 양동인 후보 지지선언.

- 4.13일 20대 총선 및 거창군수재선거일. 개표결과 양동인 후보 당선. 당선이 거의 결정된 밤 10시경 양동인 당선자가 천막을 찾아 범대위 관계자와 당선의 기쁨 나눔.

박권범 15,428표, 변현성 3,339표, 양동인 15,964표. 536표 차로 양동인 후보가 박권범 후보 누름. 무소속 단일화 거부했던 변현성 후보는 9.6%의 득표율에 그침.

박권범 후보는 남상면을 제외한 면지역에서, 양동인 후보는 월천지역(8투표구)을 제외한 읍지역에서 강세.

총선에서는 강석진 후보가 61,475표(62.67%) 득표로 당선. 권문상 전 대표는 25,068표(25.55%)를 얻어 4년 전 19대 총선 때에 비해 10% 가량 상승.

- 4.14일 오전 10시 양동인 군수 취임식 열림. 범대위 측에서는 자중하자는 입장에서 참석하지 않음. 오후 8시 아메리카노에서 범대위 대표단 회의 개최(이곤섭, 김은옥, 이춘옥, 이점도, 서미경, 류현덕, 심순애, 김하주). 이○○, “범대위 해체 및 민관협의체 구성 수순 밟아야 하지 않나? 상임위에서 결정하자.” 이○○, “조기 무장해제는 맞지 않다.”, 류○○, “해체 문제는 전 회원의 의견을 물을 사안이다. 해체는 맞지 않고, 집행부 재신임이 적당할 것 같다.” 이외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 개최, 단톡방 이탈방지를 위한 공지, 천막 프로그램(영화상영 등) 준비 등이 제안됨.

- 4.20일 20:00, 화담에서 지역원로인 어윤동 거창문화원 부원장(전 거창대성고 교사)을 초청, 간담회 가짐(이춘옥, 류현덕, 심순애, 김하주)

- 4.28일 19:00 콘서트하우스IN에서 8차 상임대책위원회 개최

참석자:이곤섭, 김하주, 표정숙, 강향숙, 이점도, 류현덕, 정연탁, 임영자, 이춘옥, 김혜선, 김상택, 김순남, 송성동, 서미경, 김은옥, 표은희, 박중현, 김기오, 임영태, 박종원, 심순애

<회의록>

- 1) 범대위 집행부 일괄사퇴(재구성 또는 재신임 건) :

① 집행부 재구성? ② 집행부 재신임이 적절한가?

- ▶ 표○○: 일괄사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브레인이나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붙어주면 좋겠다. 각을 세우지 않고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 김○○: 재구성과 재신임의 차이가 무엇인가? 재구성은 개인적으로 사퇴 또는 연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재신임은 집행부 전원을 신임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재구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 표○○: 집행부를 재구성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위원회 형태든 준비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이○○: 시간을 미룬다고 누가 더 오겠는가?
- ▶ 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김○○: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을 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난 한 싸움이 일어나야 할텐데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
- ▶ 정○○: 몇 명이 모였나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주제가 무거워서 안 나온 것이다. 사람숫자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현 집행부가 전문가지, 누가 더 전문가이겠는가? 군청 내에 교도소 TF팀을 만들 수 있다. 집행부의 많은 부담 줄일 수 있겠다. 국면이 전환되었으므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나 집행부의 중요 멤버는 유지.
- ▶ 표○○: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한다. 현 집행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면 좋겠다.
- ▶ 류○○: 일괄사퇴에 대해 선대본부방에 오픈하고 삼백초방에 재구성에 대해 펼쳐놓고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논의를 삼백초방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 김○○: 일괄사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의 의미 알려야 한다. 새로운 집행부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자.
- ▶ 정○○: 국면의 전환에서 사퇴를 하고 새로운 범대위를 구성을 위한 일괄사퇴로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류현덕, 이점도, 김은옥은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
- ▶ 류○○: 4기 집행부를 꾸릴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 ▶ 서○○: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안다. 보강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1기부터 해왔고 2기 때도 자기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힘을 빼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 ▶ 표○○: 헤쳐 모이자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자는 의미.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파가 나와야 한다. 찾아야 한다.

※결정사항

- ① 일괄사퇴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변을 달아 안전화한다. ② 삼백초방에 안전으로 올린다. ③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 동의한다.
- ④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추천하자. ⑤ 김상택, 김은옥, 이점도, 류현덕을 추천한다.
- ▶ 김○○: 정치적 방향과 감각으로 이제까지 일을 만든 사람은 류현덕이다. 류현덕이 빠지면 일을 할 수 없다. 류현덕 이름을 넣자.
- ▶ 김○○: 빠른 시기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
- ▶ 이○○: 범대위 진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2:8로 해체와 존속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3기로 가면서 국장들은 관망, 대표들만 선거국면에 임하는 상태로 갔다. 15명의 운영위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예전만큼 부하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류현덕 : 비대위원 고사)

2) 선거 평가

- ① 후보단일화의 실패관련: 군민운동사의 치명적 오점, 후보단일화의 책임을 집행부에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애와 선대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변현성후보는 애초부터 단일화에 대한 생각 없었다. 범대위 집행부와 소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과 군민과의 약속 어긴 부분에 대한 책임

을 저야 한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유권자단일화의 실효성: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 유권자단일화로 방향 잡음. 유권자단일화에 대해 용어의 문제 거론하면서 비판 아닌 비판하는 개인이나 세력의 문제, 이로 인한 분열로 표가 갈라진 부분은 위험했다. 범대위의 책임론과 분열 조장은 아찔한 상황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이○○: 변현성 후보에 대해서 기자회견 필요하지 않나?

▶류○○: 개인적으로 sns 상에 문제제기 할 수 있으나 자체,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한다.

3) 향후 상임위 활동 방향 및 역할

▶이○○: 20-30개 정도의 단체에서만 그동안 활동했다. 88개의 단체에게 계속 활동의 여부를 묻고 상임단체의 관리를 하고 신규단체의 모임을 가입시키도록 한다. 침체되고 잠복되어 있는 단체들을 영입하여 활동하도록 하면 좋겠다.

▶류○○: 군청 인사 즈음하여 양군수의 전화를 받았다. 범대위와 각을 세웠던 사람 확인차, 무난한 인선 확인의 의미를 전달받았다. 천막의 철거여부에 대한 질문에, 유지의 뜻 전달, 국회, 법무부의 학교앞교도소 반대는 양군수 혼자 못 막는다. 군민이 막는 것이다. 국회의원, 군수 당선자에게 요구, 법무부 입장 고수의 변 들고 옴. 5월30일 국회등원 전에 실과장 법무부가도록 하고 5월30일 이후 국회가서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국회 가서 어필하기 좋은 시점이다. 국민의당도 접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회가 법무부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돈을 잘못 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도움받아야 하고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 막아야 한다.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버스 30대는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강 국회의원이 가만히만 있어만 주어도 된다.

▶이○○: 4기 집행부로 구성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겠다.

▶정○○: 상임위원회의 구성 진행도 비대위로 다 넘기는 것인가?

▶박○○: 현 집행부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저조한 것은 무언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오늘 안 나왔다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언의 지지라고 보면 된다.

• 5.11일 15:00, 김하주 사무국장, 2015.12.10.일과 2016.2.6.일 천막설치 건으로 검찰조사 받음.(양동인 군수가 취임을 전후해 천막관련 고소고발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듯함.)

• 5.27일 17:30, 콘서트하우스IN에서 범대위 4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김은옥(대회협력), 류현덕(대변인,언론담당), 이점도(상임대책위원장), 이곤섭(아빠부대 대표), 서미경(거창여성회 대표), 임혜숙(거창여성농민회 대표), 이호정(학부모,아림초 학부모), 이미숙(학부모대표, 창동초 학부모), 송성동(교사 대표. 전교조거창지회 사무국장), 이선미(노동계 대표. 학비거창지회장), 이숙형(교사 대표), 김하주(사무국장)

용어사용의 혼선을 막고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집행부 명칭을 “범대위 4기 집행부”로 공식 결정.

이후 회의를 통해 이춘옥, 김상택(거창농민회 대표), 심순애, 김순남(고등

학부모대표, 대성고), 김수영(중등학부모 대표, 여중), 이정호(학원연합회 회장) 씨 추가 영입.

• 6.3일 14:40~15:20분 강석진 의원 거창사무소 방문

이점도,이춘옥, 류현덕, 김하주/강임석 사무국장, 박세환 비서관

<범대위 측이 강석진 의원에게 전달을 부탁한 사항>

- 1.거창교도소(법조타운) 부지이전과 관련해 강 의원이 후보 시절 한 약속(학교앞 교도소 이전)을 꼭 지킬 것이라 군민들은 믿고 있다.
- 2.해당 문제와 관련 강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범대위에서 적극 돕겠다.
- 3.해당 문제와 관련해 본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추경 예산이 먼저 편성된다면 큰일이다. 반드시 막아 달라.
- 4.법무부 등의 관련 부서와의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 따라 해당 문제가 쉽게 수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비용처리 문제와 이전 부지 구입 예산 마련 역시 국회 법사위에서 능히 처리가 가능하다. 강의원께서 힘을 써 준다면 해당 문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범대위는 생각하고 있다.
- 5.6월 10일 전후로 국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법사위 위원 등 관련 위원들을 만나고자 한다. 올라가게 되면 강 의원을 먼저 찾아 뵙겠다.

• 6.2일자로 거창군측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고소건 재판 출두 요구서 받음.(이곤섭,이점도,류현덕,김은옥,임영태,김상택) 재판 일자는 6.22일 오전 11시.

• 6.10일 20:00, 콘서트하우스IN에서 양동인 군수와 범대위 4기 집행부, 학부모와의 면담 개최. 양동인 군수,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 “교도소 이전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구체적인 흐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힘. 급식문제와 관련해 “취임 전과 입장변화는 없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단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힘. 이외에도 국제연극제, 거창군장학회, 군 위탁사업장 문제 등을 언급함.

• 6.15일 19:30 천막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고소건과 관련해 관계자 회의. 이곤섭, 류현덕, 이점도, 임영태, 김하주. 천막을 자진철거하되 바로 하지 않고 24일 군민화합 한마당 때 이벤트행사로 열 것을 군에 전달기로 함.

• 6.21일 08:00 거창읍로타리에서 국회방문 출발(김은옥, 이점도, 류현덕, 김하주) 13:30 강석진 의원실 방문해 김재선 보좌관에게 교도소 관련 설명 및 자료전달. 이후 노회찬, 김두관, 이용주, 박광운, 윤상직, 김진태, 조웅천, 정갑윤, 금태섭, 권성동 의원실을 찾아 보좌관 및 비서관에게 브리핑. 위해저녁 8시 콘서트하우스IN에서 양동인 군수와 범대위 대표단,

학부모대표와 간담회 개최 예정.

- 6.22일 11:00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호법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1차 공판. 검사 구형-류현덕.이점도 징역 1년, 김상택.김하주 징역 10개월, 김은옥.임영태 징역 8개월, 이곤섭 징역 6개월.

- 6.24일 18:30 거창읍로터리에서 검찰구형에 대한 규탄대회 개최. 150여 명 참석. 김은옥 경과보고, 심순애 성명서 낭



- 독, 이점도 규탄발언, 이곤섭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
- 6.25일 15:00 강석진 의원 거창사무소에서 강 의원 면담.(김은옥,서미경, 이점도,류현덕,심순애,김하주,박중현). 범대위-“관록 있는 국회 법사위 의원 보좌관들은 추경 및 본예산 편성.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강의원께서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예산을 막으면 교도소사업 추진 못한다.” 강석진-거창군과 군민들이 단합해 법무부를 설득해야 한다. 주민민원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같이 고민해 보자.“
- 6.28일 20:00 와플칸에서 천막 자진철거 관련 긴급상임대책위 개최. 천막 자진철거가 양형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6.30일 자진철거기로 의결.
- 6.30일 29:30 거창읍로터리에서 군민화합을 위한 천막자진철거 기자회견. 공민성 군의 기타연주, 기자회견문 낭독, 이점도 자유발언, 천막철거, 천막관련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
- 7.5일 07:00 법무부 및 국회 방문 위해 로터리에서 출발(김은옥,류현덕,김하주). 11:00 법무부 시설담당관 등 3명과 면담.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으나 법무부의 약간 누그러진 듯한 태도변화 감지. 법무부-“저희도 곤혹스럽다. 거창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 재검토는 어렵다.” 범대위-“이전이 가능하다면 거창군에서

희생할 부분은 희생할 것이다. 간절한 기대감 안고 왔다. 국회 설득작업 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사정을 낮게 만들어 보겠다. 군민들이 더욱 노력 하겠다.” 14:00 의원면담. 14:00 강석진 의원 면담, 14:30 이용주 의원 보좌관 면담, 14:45 추미애 의원 보좌관 면담. 15:20 추혜선 의원 보좌관 면담. 16:00 노회찬 의원 면담. 17:00 김두관 의원 면담. 17:30 서영교 의원실에서 유상선 보좌관 면담.

- 7.6일 10:00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선고공판.

결과: 김은옥 벌금 100만원, 김상택 벌금 200만원. 나머지는 벌금 형의 선고유예. 이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기로 함.



- 8.19일 07:00, 법무부 집회 및 국회 기자회견 위해 버스 1대로 읍사무소 앞에서 출발. 11:00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과 대화 및 기념촬영. 이재명, “지자체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국책)사업도 안 된다. 문제는 재정탄압인데, 군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한다.” 14:00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 15:30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 9.2일 19:00 1교 위 둔치에서 교도소 부지이전과 단합을 위한 별별장터. 우천임에도 1,500여 명의 군민 참석. 먹거리장터 및 프리마켓으로 진행. 1,200만원의 순수익 추산.
- 9.22~25일까지 군민한마당축제 기간 교반 홍보부스 운영. 풍선 및 전단 배부. 24일에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부스 방문해 집행부와 대화.
- 9.27일 07:00 정부과천청사 앞 집회 및 더민주 원혜영 최고위원 면담 위해 상경. 11:00 정부과천청사 앞 현수막&피켓시위, 13:30 원혜영 최고위원 면담. 14:30 원 최고위원의 주선으로 박주민 의원 면담. 박주민, “국감 때 (거창교도소) 문제제기 하겠다. 국감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장관 혹은 기조실장을 만나 이야기해보겠다.”
- 10.6일 10:00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호법정에서 이점도 대표 선거법위반 선고공판 열림. 구형 200만원에서 80만원 판결. 항소함.
- 11.8일 21:00 상황실에서 양동인 군수와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양 군수가 “오늘 법무부로부터 거창군에서 12월 말까지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건

의하면 민원이 없고, 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고, 주민밀집지역이 아닌 등 조건을 검토한 후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힘.

- 11.28일 20:00 광안리에서 대체부지선정위원회 관련 시사단 긴급회의. 결론, “주민이 제안한 대체부지가 나왔다. 상임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11.30일 19:30 거창YMCA에서 범대위 상임대책위원회 개최. 김은옥, 류현덕, 김홍섭 3인을 부지선정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의. 선정위원회에서 부지선정과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을 것, 주민민원 해결방안을 요구할 것 등을 결의.
- 12월 말 현재 거창군에서는 남상면 중산마을, 마리면 오리골 두 곳을 대체부지로 법무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

■ 월성계곡 군립공원 관련 활동

- 6.1일 14:00, 북상면복지회관 주민공청회 열림
- 시민단체에서는 거창YMCA 표정숙 이사장과 김홍섭 사무총장, 푸른산내들 유영재 푸른산내들 정책국장과 이순정 간사, 함께하는거창 이성호 공동대표와 김하주 사무국장 참석.
 - .공원구역 지정은 2004년 정주환 군수 시절에 이미 되어 있었으나 여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화장실, 주차장과 같은 공원시설물조차 설치할 수 없는 상태였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당지구 내의 개축 등 어떤 개발행위도 원천봉쇄되어 있었던 상황.
 - .군에서 1억 여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도지구 지정을 포함, 공원계획 수립에 나서게 됨. 쟁점은 개발도 관리도 안 되는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하면서 화장실 주차장 등 공원시설물을 갖춰서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냐로 보임.
 - .유영재 정책국장이 공원설립 취지에 맞도록 황점~월성마을 구간도 공원에 편입시킬 것, 불법으로 설치되어 이용되는 캠핑장 등을 대체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앞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됨. 시민단체에서는 의견을 정리, 산림녹지과와 용역사를 따로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

■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감사청구 건

- 7.5일(화) 오전 위천 상천 주민들 군수실을 찾아가 사업 취소 확답 받음.
- 사업 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거창YMCA,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신판성 산림녹지과장에 대해 도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준비 중. 6.29일 정연탁 안의한의의원 원장 찾아가 논의(김홍섭, 이순정, 임영태, 김하주),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 활동

▶ 거창시사단 신년모임

- ▶ 1.4일 19:00, 광안리
- ▶ 참석자: 김기오, 이점도, 김홍섭, 이필순, 서미경, 송성동, 권문상, 이순정, 정연탁, 김하주.
- ▶ 결의사항:
 - 1) 시사단의 기본주장이었던 기초지자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꾸준히 요구한다,
 - 2) 각 단체별로 주요 정책제안 작성, 취합한 후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
 - 3) 범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후보단일화의 키워드는 교반과 무상급식이다.
 - 4) 단일화 방식(예. 여론조사)과 관련해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을 시사단에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 5) 올해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 6) 위안부소녀상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타당성 조사를 한다.
 - 7) 범대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기초지자체장 정당공천배제 성명서 발표

- ▶ 1.16. 11:00~, 신성범 의원 거창사무소 앞
- ▶ 참가자: 이점도, 이순정, 송만호, 김홍섭, 이필순, 정은주, 이운길, 김하주.
- ▶ 성명서 발표 후 신성범 의원 거창사무소 방문해 성명서 전달.

▶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거창YMCA,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선거대비 활동

- ▶ 3.24일 19:00, 한들신문.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거창YMCA,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군수후보에게 정책제안과 관련해 예비모임 가짐.

이성호, 정연탁, 김홍섭, 이순정, 김하주, 김태섭.

- ▶ 3.31일 11:00,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책제안 기자회견. 오후에는 군수후보 사무실 돌며 정책제안서 전달하고 서약서 받음.
- ▶ 4.4일 19:30 거창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거창YMCA와 거창지역신문협회 주최로 군수후보 초청토론회 열림.

▶ 권문상 전 대표 총선출마 관련 활동

- ▶ 3.11일 19:30, 총선 출마와 관련해 시사단 모임 가짐. 유영재 사회, 김태경 경과보고.
권문상 인사말, “선거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 4개 군 포함하는 정당사무실을 개소했다. 2017년 12월을 대비하자. 거창교도소도 대선에서 이기면 해결된다.” 정연탁, “민주세력 결집이 필요하다.” 유영재, “각 단체의 이름을 내건 공식 지지선언은 별 의미 없다고 본다. ‘권문상’이라는 사람을 보고 모였으면 좋겠다.”
- ▶ 3.30일 19:00 선거사무소 개소식

▶ 선거 후 범대위 진로 논의 위한 거창시사단 회의

- ▶ 4.27일 19:00, 광안리
- ▶ 참석자: 이점도, 정연탁, 김홍섭, 유재균, 송만호, 유영재, 서미경, 최광재, 임영태, 김하주
- ▶ 안건1: 범대위 진로 및 존치 여부 건
현재 표정숙, 이점도 상임대표와 이곤섭 상임대책위원장 사의표명 상태.
○이점도: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0~20%는 범대위 해체를 주장하나, 나머지 대다수는 양군수 지원 및 법무부 압박을 위해 범대위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영재: 향후 2년간 양군수의 군정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양군수가 현 19대 국회 법사위 위원들과 통화했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교도소사업의 추진동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답변을 받았다. 20대 국회 야당 법사위에 도움을 부탁하면 법무부의 사업 강행도 어려울 듯 보인다. 거창의 군수재선거 및 전국 총선 결과가 현재 교반에 매우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나 양군수의 뒷배가 없다. 모든 시민단체

가 범대위에 집중된 상태인데, 앞으로 시민단체는 각자 맡은 역할을 강화해 양군수를 지원하고 범대위는 범대위대로 가야 한다. 2년간 양군수 군정의 서포터 역할이 필요하다.

○정연탁: 범대위는 존치시키는 게 좋다. 범대위는 말그대로 양군수의 친정집이다.

○김홍섭: 범대위도 예전처럼 힘겹고 어려운 싸움 하던 시기는 지난 듯하다.

○송만호: 양군수가 공무원들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거짓서명부 및 가야문화권 사업 등 두서너 꼭지만 있으면 장악 가능하다. 단절된 민관거버넌스를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교도소 부지이전 TF팀을 군에서 꾸리면 범대위에서 2~3인 결합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본다.

○결론: 범대위의 진로에 관한 거창시사단의 입장은 존속. 집행부 참가 여부는 현 이점도 상임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대신 상임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동의하나 이곤섭 상임대책위원장이 유임할 경우 공동추대 제안하여 범대위 집행부와는 한발 물러난다. 시사단 몫 상임대표로는 김상택 홍보국장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추진.

▶안전2: 시민사회단체별 군수면담이나 민원 등 제안사업은 6월말 하반기 군의 인사 후 실행하자. 특히 교반으로 각 단체에 피해를 준 담당과,계장에게로 도움을 다시 요청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인사 후 새로운 담당자에게 제안하자. 단, 급한 단체는 알아서 추진하자.

▶거창시사단 정책회의

▶7.14일 19:00, 광안리

▶참석자: 이점도, 김하주, 송성동, 임영태, 유영재, 이순정, 김기오, 서미경, 이순정, 손은자, 송만호, 김상택,

▶논의사항

1) 민주군정협의회 제안의 건

거창YMCA 하동근 간사가 (가)민주군정협의회를 제안하다.

○함께하는거창 이점도 대표가 거창YMCA 김홍섭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민주군정협의회 제안을 추진하자고 동의하다.

○거창YMCA 유영재 이사가 민주군정협의회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각 단체별 주요현안과 정책의 고민 속에서 민주군정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 정책팀이 먼저 꾸려지고, 그 정책의 고민 속에서 민주군정협의회가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본다. 또한 양동인 거창군수가 민주군정협의회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군정협의가 자칫 잘못하면(양동인 거창군수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교조 송성동 사무국장이 유영재 이사의 말에 동의하고 정책팀을 꾸리고, 이후 신중하게 민주군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함께하는거창 이점도 대표가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거창YMCA 김홍섭 사무총장이 추진하되, 각 단체의 실무자와 의논 후 전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다.

2) 거창군의회 방청단 구성의 건

○거창YMCA 하동근 간사가 가)거창군의회방청단 구성의 건을 제안하다.

○거창YMCA 유영재 이사가 거창YMCA의정지기단의 사례를 이야기하다. 단순 방청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청을 시작으로 정책제안, 감시, 언론보도 등의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지속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하동근 간사가 방청을 시작으로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차츰 감시, 제안, 언론보도의 순으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하다.

○이점도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거창YMCA와 여성회를 중심으로 방청단을 꾸리되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자고 함.

3) 김향란 더불어 민주당 군의원 건

○이점도 대표가 김향란 군의원 건을 이야기함.

○김향란 군의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좀 더 지켜보자

고 의견이 모아지다.

4) 시민사회단체 체육대회

○함께하는거창 김하주 사무국장이 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석을 전후하여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각 단체의 분담금을 모으고 협찬을 받아서 예산을 늘리고 시기는 추석 전후로 잡고 추진하자고 결의하다. 이를 위해 각 단체 실무자모임을 수시로 갖기로 결의하다.

▶거창시사단의 정상화를 위한 회의

▶ 10.19일 19:00, 광안리

▶ 참석자: 이점도, 최광재, 정성순, 유재균, 김홍섭, 유영재, 최외순, 이곤섭, 김하주, 이순정, 정은주, 우성만, 김태경, 윤동영, 박보건, 이은정, 윤철

○이점도 제안설명: 2년 반 동안 거창시사단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계속 이 구도로 갈 것인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 시사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시사단의 (범대위로부터의) 분리는 범대위의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를 범대위에 결합시키고, 나는 대선국면 등에서 시사단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성순: 시사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유영재: 현재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현 상황에서 버텨주는 게 최선이다. 강석진 의원도 큰 도움이 못 된다.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이다. 교반운동과 정권교체운동이 같이 가야 한다. 시사단이 범대위에 묶여 있으면 정치적 입장(표명)도 범대위를 벗어날 수 없다. 시사단의 독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점도: 교사 중에서 시사단 대표를 뽑자는 제안이 있었다.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대위와 공조하되, 이 가운데서 시사단 각 단체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최광재: 현실적으로 시사단이 범대위에서 빠질 수는 없다.

○이곤섭: 이점도 대표가 범대위에서 빠지면 범대위가 와해된다. 시사단의 어느 누구도 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 논의 끝에 1번 이점도 대표직 유지, 2번 대표직 사퇴, 3번 대표직을

유지하되 시사단 일에 더 비중을 둔다는 세 개의 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있으나 절충안으로 유영재가 제안한 “향후 정권교체를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별도기구를 만들어 활동의 무게중심을 범대위 활동에서 정권교체로 옮겨 가기로 하고, 각 단체가 정권교체를 위한 시민사회기구 참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이점도 대표가 범대위에서 시사단으로 활동의 중심을 옮긴다는 안으로 결정됨.

▶거창시사단, 제 정당, 민중연대 비상시국회의

▶ 일시: 10월 31일

▶ 장소: 거창군농업인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단체: 거창YMCA, 함께하는거창, 푸른산내들, 거창여성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전교조거창지회, 사람사는세상거창지회, 연소주거창지부, 민주노총일반노조 거창군공무직지회, 희봉노조, 더민주당, 정의당

▶ 주요합의 내용

1. 가칭)국정농단 심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창애국군민모임 결정

공동대표: 각 단체장, 집행위원장: 윤동영

사무국-김하주, 이순정, 이은정, 임영태, 하동근. 회계는 이순정 간사가 맡기로 함.

연락책: 시민사회단체 - 이점도, 야3당-유영재, 각 단체-권문상

※ 지역의 어른들을 고문으로 모시자는 의견이 있었음

YMCA 이형원 증경이사장, 표만수, 전성은 등

※ 야권세력뿐만 아니라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등에도 동참할 것을 권유

2. 11월 12일 민중권기대회까지 지역에서 분위기를 모으자.

3. 단체별 1인시위 계획하여 11월 1일부터 돌입(실무측에서 단체별 조직 파악하여 위치배분 등) - 11월 3일부터 로타리에서 영상상영

4. 각 단체별 분담금 10만원

5. 분향소 천막은 절반으로 나누어서 거창애국군민모임 창구로 활

- 용하고 로타리 중심부로 옮길 것을 결의
6. 11월 12일 민중권기대회는 각 단체별 참가자를 파악하여 사무국으로 제출
 7. 11월 4일, 11월 11일 지역에서 촛불집회 개최

■ 무상급식 정상화 활동

• 거창급식연대, 양동인 군수 면담

- 5.10일 오후 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거창급식연대 관계자 및 학부모 16명 참석.
- 급식연대, 양 군수에게 ‘무상급식 전면시행 예산 4억5천만원 편성’ 및 ‘야권 단체장인 김해시와의 공조’ 당부.
- 양동인 군수,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만 지켜보자’는 입장. 김해시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 피력. “기본적으로 아이들 급식문제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인 만큼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힘.

• 거창급식연대 정기총회 개최

- 5.17(화) 오전 10시 거창교육지원청 3층
- 각 학교 학부모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원 등 50여 명 참석.
-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확보, 거창급식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급식의 질 개선, 거창군 급식조례 개정, 식자재 입찰 문제 개선,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올해 주요 활동계획으로 잡음.

• 2016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9.20일 14:00 2016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대행법인인 원협의 9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군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원협은 10월부터 급식센터에서 손을 땀.

• 거창급식연대, 거창급식지원센터 정상화에 관한 방안 논의를 위해

양동인 군수와 면담

-10.19일 14:00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해야 된다는 공감대속에 한시적인 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방안 찾기로 함.

• 학교급식지원센터 대행기관 선정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12.20일 14:00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거창원협과 거창축협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성평가(60%)와 정량평가(40%)를 통해 선정.

-심의 결과 거창축협이 총점 83.66(거창원협 72.9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됨.

■ 세월호 촛불문화제

- 1.16: 영상상영, 자유발언, 조경주&신영택 노래공연.
- 2.16: 문화제 대신 촛불 밝히고 피케팅으로 진행.
- 3.16: 영상 상영, 조경주&신영택&임영태 노래공연, 청소년문화의집 학생의 자유발언.
- 4.16: 세월호 2주기 촛불문화제 진행. 우천임에도 청소년, 시민 등 150여 명 참석. 이경재 시인의 시낭송, 하귀영 회원의 살풀이춤 공연, 전기호 목사님과 조경주&신영택의 노래공연, 김순현 학생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노래공연 등으로 진행.
- 5.16: 영상상영, 조경주 씨의 노래공연,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
- 6.16: 영상상영, 자유발언 등 진행
- 7.16: 영상 상영, 전기호 목사님의 자유발언.
- 8.16: 세월호&사드반대 문화제로 진행.
- 9.16: 세월호&사드반대 문화제로 진행.
- 10.16: 세월호&사드반대 문화제로 진행.
- 11.16: 세월호&싸드반대&고 백남기농민 추모문화제. 김성욱(세월호 고 김초원 선생님 부친)씨의 발언, 배경숙 씨의 성주방문 관련 발언, 임영태씨의 '매향리는 전쟁중' 오카리나 연주, 백승호 민주노총 일반노조 거창공무직지회장의 자유발언으로 진행

- 12.16: 문화제 형식 대신 촛불&피켓시위로 진행.

■ 박근혜정권 규탄 시국집회

- 10월 31일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모임을 통한 국정농단심판,민주주의회복을 위한 거창애국군민모임 결성
- 11월 4일 제1차 촛불집회
- 11월 11일 제2차 촛불집회
- 11월 12일 서울 상경집회
- 11월 19일 제3차 촛불집회
- 11월 26일 서울 상경집회
- 12월 2일 제4차 촛불집회
- 12월 8일 강석진 의원 규탄 기자회견
- 12월 10일 서울상경집회
- 12월 24일 촛불집회 홍보활동
- 12월 31일 촛불집회



■ 함께하는거창 2016 워크숍

▶일 시 : 2016. 3. 18(금) 17:30

▶장 소 : 대성복점

1) 함께하는거창 자체사업 강화

2년 전인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학교앞 교도소 반대투쟁으로 함께하는거창 고유의 사업에 소홀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제 4.13 총선 및 군수재선거를 기점으로 교도소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이후 함께하는거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송성동: 다가오는 4.13 선거가 교반 등의 분수령이다. 함께하는거창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는 군정 및 의정 모니터링에 인력을 상시 배치해 감시해야 한다. 전교조 거창지회가 올해 지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 조직재정비에 들어간다. 조합원이 180여 명 정도인데, 지역내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대회의 정례회에 함께하는거창이 앞장서 달라.

▶변유신: 군정비판만이 아니라 군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정성순: 군공무원과 함께하는거창이 함께 할 수 있는 친목도모 행사 같은 걸 여는 건 어떤가?

▶전병준: 군의원들의 정치권 출서기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명서와 논평 등을 적극 발표해야 한다. 회원 참여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이순정: 특별히 함께하는거창에 바라는 것은 없다. 다만 교도소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한다.

2) 회원활동사업

최근 몇 년간 열린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입니다. 함께하는거창은 100%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꾸려나가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거창이 실질적으로 회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너

무 적고 또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회원님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광재: 몇 년 전 함께하는거창에서 당구장을 빌려 회원당구대회를 연 적이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성순: 야구, 농구 등 스포츠모임 만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다. 올해 당구대회를 다시 개최해 보는 건 어떨까? 사람사는 세상 거창지회의 경우 작년 여름에 수송대 민박집을 빌려 1박2일로 회원 야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민박비도 성수기 후라 30만원 정도였다. 1박2일이 어렵다면 당일 야유회도 좋을 것 같다.

▶송성동: 전교조 거창지회에서도 4월 환영회, 번개 배구대회 등의 행사를 열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 시민단체 연합체육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한 실무모임을 갖자.

▶이순정: 함께하는거창이 해마다 회원산행대회를 여는 것으로 아는데, 등산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다. 둘레길 트레킹이 더 좋을 것 같다.

3) 소모임 활성화

현재 함께하는거창에는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이라는 두 개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작은권리찾기모임은 매월 꾸준한 정례모임을 통해 활동방향과 내용을 점검해 오고 있으며, 푸른숲도 올해 들어 비회원을 포함한 정기산행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재: 소모임 활성화는 바로 회원 확대로 연결된다. 소모임 활성화는 함께하는거창의 핵심과제이다.

▶김기오: 예전 영화제작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영화감상모임으로만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월 2회 정도로 1회는 극장에서, 나머지 1회는 함께하는거창에서 보유한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회의실 등지에서...

▶전병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전 회원의 소모임 회원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자.

▶김기오: 독서모임 등 취미활동 모임이 회원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정연탁: 군의회 의정모니터링 모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활동을 전담할 2~3명만 있으면 된다.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자.

4) 기타

1) 소식지 정기발행

편집위원회 구성, 분기별 1회 발행을 목표로 한다.

2) 연 1회 수준이었던 영화 번개 회수를 늘린다.

3) 3년 전 실시했던 꽃배달사업을 실시한다.

4) 거창NGO박람회 이후로 맥이 끊겼던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 거창시사단 공동상영

- 12월 8일 19:20, 메가박스 거창점
- 성인 및 학생 약 220여 명 관람
- 거창시사단 소속 10개 단체가 분담금 15만원씩을 부담해 관람. 함께하는거창에서는 올해 치르지 못했던 영화 번개를 이 영화 관람으로 대체하기로 함.

■ 2016 거창시사단 연합 송년모임

- 12.23. 19:00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 사무실
- 사사세거창지회(회장 정성순), 연소주거창지부(대표 권문상), 푸른산내들(대표 정연탁), 함께하는거창(대표 이성호, 이점도) 네 단체 연합으로 준비.
- 50여 명 참석. 송만호 연소주거창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네 단체 대표 인사말 및 노래, 시낭송 등으로 진행. 공식행사 후 노래방기기로 여흥의 시간 가짐.

회원 소모임 활동

주 문 술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안내(회장: 이기식, 산행대장: 백철우)

■ 1월 신년산행 내삼신봉

- 1.날 짜 : 1월 17일
- 2.참 가 자 : 이기식, 김영수, 권문상, 서대림, 방창희, 김순남, 백철우 7명
- 3.코 스 : 청학동⇨삼신봉⇨내삼신봉⇨삼신봉⇨청학동
- 4.산행시간 : 4시간

■ 1월 반기산행 황경재

- 1.날 짜 : 1월 31일
- 2.참 가 자 : 이기식, 김영수, 신용균, 백철우 4명
- 3.코 스 : 송계사⇨황경재⇨송계사
- 4.산행시간 : 4시간

■ 2월 경기산행 계룡산

- 1.날 짜 : 2월 21일
- 2.참 가 자 : 이기식, 김영수, 김순남, 방창희, 강경성, 서대림, 백철우 7명
- 3.코 스 : 동학사⇨관음봉⇨삼불봉⇨남매탑⇨동학사
- 4.산행시간 : 4시간

■ 3월 경기산행 월출산

- 1.날 짜 : 3월 20일
- 2.참 가 자 : 이기식, 김영수, 신용균, 윤철, 방창희, 조영준, 백철우, 송만호, 이종현 등 39명
- 3.코 스 : 기체육공원⇨산성대⇨광암터⇨천황봉⇨바람재⇨경포대
- 4.산행시간 : 5시간

■ 4월 경기산행 덕유산-삿갓골재

- 1.날 짜 : 4월 17일
- 2.참 가 자 : 이기식, 이영자, 김태경, 서대림, 백철우 5명
- 3.코 스 : 황점⇨삿갓재산장⇨황점
- 4.산행시간 : 5시간

■ 6월 반기산행 세석산장

- 1.날 짜 : 6월 5일
- 2.참 가 자 : 이기식 부부, 김영수, 권문상, 전수미 부부, 아들, 유계숙 부부, 아들, 김태경, 최은영, 백철우 부부(14명)
- 3.산행코스 : 거림⇨세석산장⇨거림
- 4.산행시간 : 4시간30분

■ 6월 경기산행 치발목산장

- 1.날 짜 : 6월 19일
- 2.참 가 자 : 이기식 부부, 김영수, 신용균, 윤 철, 방창희, 송만호, 김미옥, 남연수, 백철우 부부(11명)
- 3.산행코스 : 새재마을⇨치발목산장⇨새재마을
- 4.산행시간 : 4시간30분

■ 7월 경기산행 무릉산

- 1.날 짜 : 7월 17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윤 철, 남연수, 백철우 부부, 조영준 부부 외 2명 (9명)

3.산행코스 : 황점⇄삿갓재골 산장⇄무룡산⇄삿갓재골 산장⇄황점

4.산행시간 : 6시간

■ 8월 경기산행 민주지산

1.날 짜 : 8월 21일

2.산행코스 : 황룡사⇄쪽재골⇄민주지산⇄석기봉⇄삼도봉⇄황룡사

3.산행시간 : 6시간(약 13km)

■ 10월 경기산행 치악산

1.날 짜 : 10월 9일

2.참 가 자 : 이기식, 신용균 부부, 이창희, 권문상, 이종현, 방창희,
김순남 부부, 백철우 부부, 김태경, 최은영, 김미옥, 강덕제,
권영희, 백성철, 나소미(18명)

3.산행코스 : 관음사⇄곧은치⇄비로봉⇄입석사⇄황골

4.산행시간 : 약 6시간

■ 11월 경기산행 현성산

1.날 짜 : 11월 20일

2.참 가 자 : 이기식, 김영수, 신용균, 백철우, 김순남, 남연수, 문혜옥,
강덕제, 정은주, 권문상, 은수미 가족, 유계숙 가족, 김미옥
(17명)

3.산행코스 : 수송대⇄필봉⇄현성산⇄문바위⇄금원산 휴양림

4.산행시간 : 7시간

■ 송년모임

1.날 짜 : 12월 18일 18:00

2.장 소 : 광안리

작은권리찾기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김기오, 총무: 심순애, 정은주)

■ 1월 월례모임

▶ 1.26일. 19:00, 광안리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심순애, 여승구, 김도연, 임영태, 장병욱, 류현덕, 김하주, 김종철, 정은주, 박고희, 윤 철.

-위천 중앙주유소 앞 로터리의 위험성 논의. 임영태가 현장도면 등 구하고 현장실사 후 담당부서에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하기로 결의.

-김기오 대표 유임. 기존 최광재 1인총무 체제에서 심순애, 정은주 회원을 추가해 3인총무체제로 꾸리기로 함.

-3년 전 추진했던 ‘찾아라 작은권리!’ 운동 당시 조직했던 부서를 보강하기로 함.

■ 2월 월례모임

▶ 2.23일 19:00, 광안리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심순애, 박덕제, 여승구, 윤철, 임영태, 정은주.

-위천 장기 회전로터리 대책 논의. 인근 위천면민 중심으로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및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군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개선책 제시하기로 함.

■ 3월 월례모임

▶ 3.29일 19:00, 광안리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김종철, 류현덕, 심순애, 이점도, 이수구, 정은

주, 김하주, 강우석, 박고희, 변유신, 장상철, 윤철

- 위천 장기 회전로터리 대책 논의. 김기오, “교반활동으로 위천회전 로터리에 대해 신경을 제대로 못 썼다.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사람 뽑자. 선거 후 작은권리 고유사업에 집중하겠다.”

■ 4월 월례모임을 겸한 작권모&함께하는거창&거창시사단 야유회

- ▶ 4.24(일) 오후 1시, 거창스포츠파크 족구장 옆.
- ▶ 연인원 40여 명 참석. 작권모 및 함께하는거창 회원 외에도 몇 사람이 초청돼 같이 즐김. 이 중 몇 명이 함께하는거창 및 작권모 회원가입 의사 밝힘.
- 함께하는거창 사무국에서 육류 및 부재료 238,140원 상당 구입 지원
- 반응이 좋아 올 가을께 한 번 더 야유회를 갖기로 결정. 행사 알림 현수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5월 월례모임

- ▶ 김기오 대표 사정상 한 주 늦춰 6.7일 대성북점에서 개최
-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김하주, 변범식, 박고희, 장상철, 심순애, 김남숙, 정은주, 임영태, 박덕제, 변유신, 이진웅, 백승모, 강우석, 김도연, 정성순, 신용민
- 군에서 시설 수정하기로 한 위천 장기회전로터리에 대해 대안 제시하기로 함. 임영태 회원이 전담. 현재 군 담당부서에서도 시민단체의 대안제시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됨.

■ 6월 월례모임

- ▶ 7.5일 19:00 대성북점
-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김하주, 변범식, 박고희, 장상철, 심순애, 김남숙, 정은주, 임영태, 박덕제, 신용민, 임영태.
- “찾아라! 작은권리!” 시즌2 준비. 회원들의 역할 분담 논의.

■ 7월 월례모임

- ▶ 7.26일, 19:00, 광안리

-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류현덕, 이진웅, 신용민, 심순애, 변유신, 김하주, 정은주, 이수구, 이점도, 장상철, 강우석, 윤철
- 위천장기로타리 개선-확인할 것.
- 분과별 역할분담-밴드공지.
- 김기오, "위천장기 회전로타리는 하나의 작은 성과다. 찾아라 작은 권리 시즌2의 홍보가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 한들신문 쪽지광고, 포스터, 군홈피배너 등을 통해 활동 홍보
- 맨홀 뚜껑 전수조사 필요하다.
- 장병욱, " 시내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미주거주택을 군이 매입해 주차 공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가?"
- 류현덕-공공기관(군청,경찰서,우체국...)에 학교앞 교도소 외곽이전 현수막을 걸자.
- 김기오-사업안건 대신 시즌2 구체화하자. 시즌1 때 쓰던 걸 재활용하자
- 광재-작권모의 실행력 높아. 각 분과 재건해야 한다. 각 분과별로 장 및 차장을 두자. 최소 두 달 안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획하자.
- 기오-실행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토크방 개설도 고려하자. 실시간 점검하자. 전체토크방 및 분과별토크방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자.
- 시즌2 자료를 밴드에 올릴 것!(포스터,제안서)
- 김기오, "작권모사업 추진할 때 함.거 사무국장의 역할(관공서 출입 및 공문 관리)이 중요하다."

■ 8월 월례모임

- ▶ 8.30일 19:00, 대성복점
-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백승모, 임영태, 장상철, 변유신, 김도연, 이진웅, 정은주, 심순애, 김하주
- 맨홀 뚜껑 문제
- 공사감독관 책임제 필요. 김기오-민관 2인 감독체제 지자체 있다.
- 포스터, 길게 시안, 홈페이지보다 sns 이용하는 방법.

■ 9월 월례모임

▶ 9.26일 19:00, 아림골

▶ 참석자: 김기오, 이수구, 신용민, 이점도, 최광재, 심순애, 배인주, 정은주, 임영태, 정성순, 박덕제, 김남숙, 강우석, 정재원, 이진웅

■ 11월 월례모임

▶ 11.29일 17:00, 광안리

▶ 참석자: 김기오, 이곤섭, 최광재, 이진웅, 백승모, 심순애, 김도연, 변범식, 윤철, 강우석, 김종철, 박고희, 장상철

- 김기오, “찾아라 작은권리2’ 내년에 본격 시작하자. 어려운 여건하에서 잘 지내오셨다.”

- 변범식: 8년 후에 작권모 대표 맡겠다.

- 최광재, “12월말 작권모 송년모임은 시사단과 별도로 열자.”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7년 사업 계획

함께하는게창이 2017년 해야 할 일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게창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보태 주십시오.

■ 사무국

- 사무국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과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게창이 해야 할 일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며,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홍 보

- 회원들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회 때 밝힌 가급적 연 4회, 최소한 상,하반기 2회 발행 목표 중 2회 발행하였으나 올해는 4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 함께하는게창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 회원 활동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큰 행사보다는 작더라도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 교육연구소, 장학사업

- 장학사업은 거창하진 않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와 입시교육 위주의 고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적 지원 외에도 아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민하겠습니다.

■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

- 예산감시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꾸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 학교앞 교도소는 올해 내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하는거창**이 적극 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의회 의정활동 감시, 정보공개운동 등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

- 일상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대표&실무자모임을 정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사 위주의 일회성 연대를 넘어 일상적 사업 고민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년간 열리지 못했던 시민단체 연합체육대회를 올해 여러 단체와 협의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갔었으나 시국문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

1.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8,500,000	인 건 비	급 여	19,200,000	
	후원금(사)	1,500,000		상 여 금	800,000	
	후원금(금)	2,0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후원금(작)	1,200,000		복리후생비	2,020,360	
기타수입	이자수익	7,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500,000	
	잡 수 입	3,500,000		사무용품비	300,000	
	전년도 이월금	12,034,969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200,000	
				통 신 비	60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1,000,000
					발 송 비	500,000
					분 담 금	4,000,000
					사 업 비	6,000,000
					회원활동비	2,000,000
					회 의 비	500,000
			출장연수비		100,00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4,716,609	
수입합계		48,741,969	지출합계		48,741,969	

2장학사업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5,600,000	장 학 금	16,200,000
이자수익	1,500	부대비용	0
전년도 이월금	1,227,716	세금과 공과금	200
-		예 비 비	629,016
수입합계	16,829,216	지출합계	16,829,216

- 주1) 예산(안)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 실제 함께하는거창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2)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6년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주3) 일반회계 중 후원금(원)은 교육연구소 설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교조 거창지회가 설립·운영하는 인문학서점 “숲”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들어오는 후원금을 매달 말일께 ‘분담금’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주4) 장학사업특별회계 중 수입액과 지출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
과

야욕과 부정으로 얼룩진 지역정치! 거창군수 재선거 정당공천 없애 책임정치 실행하라!

지역 내 정당들은 야욕과 부정으로 얼룩진 지역정치를 되살리고 참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거창군수 재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두 번의 보궐선거를 치렀으며 다가올 4월에는 또 한 번의 거창군수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정치권력에 대한 탐욕과 부정부패 앞에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러 왔음은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날로 초라해져가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다. 그동안 군수직을 거쳐 갔던 이들은 탐욕과 무능으로 지방자치를 무너뜨렸으며, 이들을 공천해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지역의 참된 정치를 실종시킨 장본인이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똑똑히 경험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거창군에서는 민원인을 겁박하다 못해 고발까지 했다. 관변단체를 동원해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주민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 말로 옮기기 민망할 일들이 자행되었다. 이뿐인가 공직사회 기강은 땅바닥에 떨어져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출세를 위해 줄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공무원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가 어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당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역의 공당이라 할 만한 새누리당은 더욱 무엇을 했는가? 주민갈등이 정점에 있었을 때 대화는커녕 소수의견이라며 등을 돌려 외면했다. 오히려 주민들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보여주었

던 모습은 지역구민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모습이 아니었던가? 권력에 눈 치 보는 기초의회 의원들은 행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의를 수렴하기보다는 행정의 뒷바라지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어디 주민과 토론하고 지역사회의 대안을 찾는 일을 해본 적이 있던가?

실종된 지역정치는 지역주민들의 고달픈 삶과 연결되어 있다. 집나간 지역정치를 다시 찾고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이다. 그 정치는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정당들은 더 이상 지역정치를 퇴보시키지 말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야 한다.

그동안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거창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진정 거창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줄을 서지 않고도 지역 정치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 정당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역정치를 되살리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거창군수 재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월 16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소통의 광장에서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정책 제안운동을 시작하며

지방자치체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원동력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 또한 참된 지방자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치는 지방자치운동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서는 유권자운동을 펼쳐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들에게 7대 군정 의제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은 군수후보자가 채택해야 할 좋은 공약 8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5기 전국의 지자체의 혁신사례 77개를 모아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혁신사례를 묶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부터 노령의 어르신을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10여 차례 크고 작은 간담회를 열어 정책제안서를 다듬었습니다.

소통의 광장에서 주민 스스로가 만든 좋은 공약은 민심이 천심임을 알리는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지역사회의 머슴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엄중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본인의 정책공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채택된 정책공약은 그 실행 여부와 성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평가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력하기를 주저치 않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짜여질 거창의 지역정가와의 계속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위해 만난 많은 주민들이 거창군수 후보자들에게 당선된 이후에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밝혀 드립니다.

2016년 3월 31일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
(거창YMCA, 주촌산내들, 함께하는거창)

[성명서]

강철우 군의원, 자진 사퇴하라! 도덕적 자질 미달, 군의원직 유지 어렵다

강철우 군의원의 음란물 사이트 유포사건이 10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강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200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강 의원은 “음란물 사이트는 내가 올린 것이 아니며, 해킹당한 것 같다. 내가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은 강 의원이 주장하던 해킹 또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때문이 아니라 강 의원이 직접 카톡에 음란사이트를 올린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최근 거창군의회 의 행보를 바라보는 거창군민들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두 의원 간의 진실게임, 의장단 선거에 모 언론사의 개입 의혹, 이러한 쑥대밭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수습은커녕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뻔뻔스러움... 여기에 차마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이번 강 의원의 음란물 사이트 유포 사건까지, 거창군민은 그야말로 거창군민임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특별히 강 의원의 행보는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군민을 상대로 정직하지 못한 변명을 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근본적 신뢰를 상실케 한 사건이다.

작은 실수 하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군민을 받들

어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태도를 망각한 것이다.

군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기구다.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그들이 바라는 방향 대로 군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군민이 뽑은 군의원들은 그들을 뽑은 군민들의 정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군의원이 이번 음란물 사이트 유포사건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거창군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군민들은 군의원에게 탁월한 도덕적 자질을 요구하진 않는다. 다만 인간으로서, 군의원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을 바랄 뿐이다.

강철우 의원은 앞서 밝힌 바대로 자신이 올린 것으로 밝혀진다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록 강 의원이 재판 결과 군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받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군민 앞에 나서서 군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강철우 의원은 군민을 속인 죄악을 속죄하고 본인의 약속대로 신속하게 사퇴하라.

2016. 10. 10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성가족상담소,
거창여성회, 함께하는거창

[기자회견문]

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보조금 횡령 의혹 및 관리감독 부실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0월 열렸던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보조금과 관련해 말썽이다.

지난 8월 실시된 경남도 감사에서, 대축전 행사를 주관한 거창군 생활체육회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1,349만원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용도 외에 사용했으며, 자원봉사자 모자구입비 1,925만원을 구입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체육회는 이외에도 총 12건, 8,200만원에 이르는 지출 증빙서류에 납품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도 아예 갖추지 않아 횡령의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서마저 이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산검사를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 및 정산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만 쓰여야 할 보조금이, 몇몇 개인들의 사적인 욕심에 의해 ‘눈 먼’ 돈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보조금 사업을 하는 여타 단체에서도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 보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 발 장

<고발인>

성 명 : 김하주

주민등록번호 : XXXXXXX - XXXXXXX

전 화 : 010-0000-0000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XXXX

<피고발인>

김진옥(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규복(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종두(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을 보조금 횡령 및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피고발인 김진옥과 김규복은 지난해 10월 거창에서 제26회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릴 당시 거창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과 상임부회장, 김종두는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입니다.
2. 피고발인 김진옥과 김규복은 보조사업자 단체 관계자로서, 2015년 2.16일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총 1,304만9천원의 보조금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이 경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3. 또한 이들은 대축전 행사 자원봉사자 모자 구입비(1,925만원)를 구입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12건 8,187만9천원의 지출 증빙서류에 납품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되지 않아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 피고발인 김종두는 거창군 주무부서장으로서 보조금의 적법한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로서, 위에 적시한 모든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승인해 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5.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계약금액: 2억9,920만원)된 개.폐회식 행사 대행업체가 계약사항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에 정해진 과업(개.폐회식 기획, 준비, 실행, 정리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제3자에게 또 다시 재위탁(계약금액: 2억6,928만원)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6. 이에 본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27

고발인 김하주 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귀하

[기자회견문]

청소년문화의집 직영체제 전환 철회하라!!

정치문제는 정치문제로 풀어야 한다. 이곳은 청소년들이 편히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가장한 폭거이다. 청소년문화의 집 직영은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뿐이다.

거창군의회는 지난달 26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01년 개관 이후 16년 동안 거창 청소년 문화의 산실이었던 청소년문화의집을 탁상공론 끝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창YMCA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지역내에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왔다. 지난 2015년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운영 잘 하는 청소년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라는 추상적이고도 뜬구름 잡는 논리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직영체제로 바꾸어 버렸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창군의회는 과감하고도 놀라운 판단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알기나 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답을 쌓기는 어려우나 무너뜨리기는 순간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청소년 분야는 전문 분야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호흡해 본 사람이라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군의회의 변명 같은 이유는 실제 세금절약이다. 기껏 해봐야 일억사천만원 조금 넘는 운영비로 일 년 동안 청소년을 만나왔던 문화의집 5명의 종사자들을 세금 낭비의 주범으로 몬 것이다. 차라리 엉뚱한 곳에 수십억씩 쏟아 붓는 사업을 청소년들에게 돌리는 게 거창군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투명성이 의심된다면 의법처리하면 된다. 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 또한 궁색하다. 실질적으로 거창군이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권한만 잘 발휘하더라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일을 하고도 형편없었던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그동안 차별하고 홀대하지 않았던가?

거창군의회는 좀 더 솔직해야 한다. 차라리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단체를 면박주고, 우사시키려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빼앗아 왔다고 말해야 한다. 거창YMCA가 어떤 단체이던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중 가장 오래되고, 회원이 많은 단체다. 차라리 교도소를 반대해서 군의회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말해야 옳다. 거창의 다른 시민사회단체에게 까불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말해야 옳았다.

우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창군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는 일을 벌이지 말라. 또한 당신들이 결정한 이번 결정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죄는 오로지 무능하고 천박한 막장정치를 일삼는 7대 거창군의회 만행이 될 것임을 밝힌다.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영하려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교육전문가,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과 토론을 하여 그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정당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상기하라!!

언론사 사주에게 목줄 죄어 어찌지도 못하던 군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았던 군의회, 군민을 내팽개치고 해외여행 떠났던 군의회, 성추문에 휩싸인 군의회, 야동사이트 퍼 날랐던 군의회!! 반성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이라. 변하지 않으면 이런 낯뜨거운 주민들의 민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6. 11. 4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절망하고 분노한 국민에게 이제는 선택하라 한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에게 절망을 안겼을 때, 그때마다 국민은 이보다 큰 절망이 있으랴 여겼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에게 분노를 안겼을 때, 또한 그때마다 국민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분노가 생기랴 생각했다.

절망과 분노의 연속,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었던 부실과 참화의 총체적인 정권의 말로가 기어코 드러났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칠 것인가!

‘이게 국가냐!’며 국민은 살고 있는 제 국가를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며 전 국민은 여태껏 살아왔던 제 나라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연루되고 개입되었는지도 미처 다 파악할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비리 정권의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우리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대한민국 현실이 통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은 교묘한 술수와 눈가림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급급하다는 것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동조하며 억지로 꾸며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국민이 먼저 사실관계를 찾아내고 폭로하는 현실이다.

검찰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 엽기적이고 막장의 끝을 보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주변의 작태를 간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추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300여 명이 수장된 무고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게 하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희생된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기필

코 책임을 묻자.

국정교과서 편찬,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일본과의 위안부협상 등 추악한 이 정권의 실정과 패악을 다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자.

국민에게는 ‘상실의 시대’, 정권에게는 ‘순실의 시대’였던 추악한 모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오히려 감추고 둘러대는데 급급한 새누리당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자.

절망할 힘도, 좌절할 힘도, 분노할 힘도 없을 것 같았던 국민은 다시 민주주의의 광장에 섰다.

박근혜정권과 그 주변 세력이 자행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거창 군민들이 다시 일어섰다.

근본적이고 큰 변화를 위한 다음의 작은 실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 '타군에 퇴진'을 위한 거창군민 시국선언운동을 전개하자.
- 거창읍 로터리광장을 중심으로 거창군민의 힘을 모아 나가자.
- 각자의 다양한 SNS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널리 전달하자.
-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 거창도 항상 함께 행동하자.

2016년 11월 4일

국정농단심판,민주주의회복을 위한 거창애국군민모임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아는거장**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아는거장**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아는 거장**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아는거장**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아는거장**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아는거장**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아는거장**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의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개방**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아는 세상**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아는 세상**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장**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장**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제 청 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거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9조(수입)

1. **함께아는계정**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장학사업 특별회계(2009. 1. 20 신설)

제31조(장학사업의 목적)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입)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 본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 또는 기관,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
3.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지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후원자 모임에서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를 정한다. 단, 후원자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사무) 장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자 모임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에 간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정관과 내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계정~~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계정~~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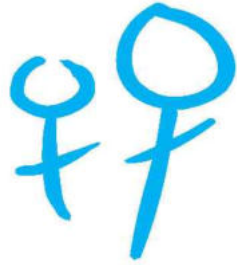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2016년 1.28일 총회 대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을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로,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서면 및 문자**”로 개정하였습니다.

※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제28조(예산 및 결산)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제형 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계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로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정관개정은 회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 당시에는 개정된 정관을 빨리 보내 달라는 행자부 측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한 정관을 먼저 보내고 이를 다음 회원총회에서 사후 추인 받는 형식으로 하자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www.gcngo.org